



국제적 협력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이상돈 / 중앙대 법대교수, 法博

I.

오늘날 환경이 인간의 문명, 아니 더 나아가 인간의 생존 그 자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잘 알려져 있다. 인간의 환경이란 과학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정치적인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하나의 생태적인 단위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주체는 주권 국가이며, 국제사회에서의 행동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도 또한 주권적인 국가를 토대로 하여 형성·발전된 것이다.

한편,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환경오염은 흔히 “transnational pollution”, “transfrontier pollution” 또는 “transborder pollution”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법분야, 즉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하여 가고 있다.

II.

국제환경법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국제적 환경오염중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한 국가내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국가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인데, 사실 인근국가의 농업과 어업에 피해를 초래하여서 관련국가간에 분쟁을 유발시킨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더 광역적이고 또한 더욱 심각한 새로운 형태의 다음과 같은 환경적 위험이 알려져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첫째, 그야말로 전세계적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몇가지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있는데, 이에선 석유·석탄의 연소로 인한 지구의 온실효과, 오존층의 소멸, 그리고 산성비가 포함된다.

둘째, 지구의 몇몇 지역에서는 심각한 생태적인 재앙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에서 아프리카에서의 사막화현상, 열대삼림의 황폐화와 이로 인한 열대종자의 소멸, 그리고 늪지의 파괴가 포함된다.

셋째, 위험한 물질의 해상운송, 해상에서의 유독물질의 처분, 그리고 위험물질의 생산·수출 및 폐기물의 타국으로의 수출등과 같이 국제적 규제를 필요로 하는 몇가지 분야의 문제가 있다.

넷째, 한 국가내의 행위가 타국에 피해를 미치는 전형적인 국제적 환경오염도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라인강 오염사고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 위험의 확산도가 지극히 광역화되는 성향이 있으며, 또한 국경지대에 원자력발전소나 대형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피해가 없더라도 위험의 존재 그 자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다수국가에 접하여 있는 하천, 호수 및 지하수의 이용을 두고서 유역국가간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법도 또한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III.

국제환경문제에 관한 법, 즉 국제환경법의 원칙중 가장 오래된 법의 일반원칙은 “누구든 자기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 피해가 발생하도록 사용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은 1945년의 유명한 트레일·스멜터 중재사건에서 원용된 바 있다.

그리고 국가책임의 법리에서는 이제는 국가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의 결과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객관적 책임론이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197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선언도 그 제 21조에서 “국가는…자국의 영역내에서의 행위가 타국 또는 자국의 국경 밖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또한 제 3차 유엔해양법협약도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의무에 합치하여 각국의 해양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외에도 각종 형태의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많은 국제적 및 지역적 협약이 채택되어 있으며, 또한 미국과 카나다는 1909년 이래 오대호의 공동관리를 하여오고 있으며, 1983년에는 미국과 멕시코는 양국의 국경지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CFC)을 규제하기 위한 협정서가 몬트리올에서 채택되어서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IV.

이와 같은 국제협력의 추세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의 보호를 위한 지역적 협약을 체결함이 시급함을 잘 알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의 해양환경은 오염에 취약하며,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공업화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이 오염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한·일·중의 협력이 시급할 것인바 무엇보다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조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

